

목차

04 신년인사 | 법륜스님

해외소식

08 나마스떼, 등계스와리(인도)

원치 않는 임신은 이제 그만 | 박명송

13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10헥타르 농장주인을 꿈꾸며 | 송현자

17 야유보완, 스리랑카

희망의 씨앗, 법씨를 지원하다 | 고빈다

20 쫄리읍쑤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4 | 정훈재

23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이 정도면 여기에선 깨끗한 물이에요! - 루북바승지역 식수지원사업 | 임희성

국내소식

26 함께 나누는 사랑

JTS송년캠페인- 모두 우리아이입니다. | 편집부

화도 마리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 모금활동 | 김미현

JTS '4°C 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캠페인 | 유필녀

아이같이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 강나영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 류연주

나눔회원소식

43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필리핀

47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을 예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어치는 칼바람만큼이나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고들 합니다만, 지난 한 해에도 훈훈한 후원이 JTS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재적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의 지원 현황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작년 겨울 발발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북 지원이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S는,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배고프고 추운 이들은 우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 하에 꾸준히 대북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을 원조하였고, 그 중에서도 피해가 극심했던 황해북도 주민들에게 밀가루 300톤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2011년 4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9개 시·도의 53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12,000여 명에게 식량, 생필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물품으로는 밀가루 300톤, 두유 72만팩(한 팩당 1,000ml), 어린이 이유식 20톤과 분유 21톤을 비롯하여, 설령탕 액기스, 비빔용 김가루, 조리짜장, 조리카레 등 식품류, 목도리, 겨울의류 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겨울 체감온도가 영하 50도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북녘의 칼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겨울 의류, 내의, 목도리, 털모자 등 다양한 방한 용품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함께 보내는 품목에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 운동 기구와 의약품, 각종 식품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 비하르주 동게스와리 16개 마을에는 12,500여명의 불가촉천민이 살고 있습니다. 900여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1,500여명의 어린이들이 16개 마을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고무적인 사업은, 이 지역 어린이들을 전부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유치원 100% 가기’ 캠페인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발판을 잘 다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의료 부분에서는 지바카 병원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무료진료 및 의약품을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모 및 영유아들에게 예방주사 및 영양제, 구충제, 분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보건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의 실리폰 지역에서 JTS 농업기술센터가 제작년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센터에 위치한 시범농장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시범 재배하여,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연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렁이 분변토, 가축 분뇨를 이용한 퇴비장을 만들어 친환경적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방법 또한 연구 중입니다. 올해에는 원주민들에게 농업기술을 본격적으로 전수해주기 위한 사업도 준비했습니다. JTS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민다나오의 50여개 지역 주민들에게 농업기술 및 종자지원을 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민다나오 북쪽의 아구산 델수르와 부키드논 남부의 다몰록 지역 등 총 6개 지역에 초등학교를 건축하였습니다. 17개 학교 2,3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과서, 문구류, 등을 봄학기 와 가을학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에서는 구충제, 손톱깎이, 비누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몰록 지원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011년 초, 다몰록 지역을 방문하여 다몰록 시장님과 무슬림 반군 부사령관을 함께 만나 다몰록 지역의 평화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다몰록은 2005년도 초등학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9개 지역에 초등학교 건축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민동산이 많은 다몰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는 코코넛 나무 17,000그루를 지원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북동부 라타나끼리주 5개 지역에서는 현재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초에 캄보디아 주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올해부터 5년간 라타나끼리주에 50개의 초등학교를 건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라타나끼리주 전 지역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 JTS의 바람입니다.

인도네시아 2009년 지진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루북바송 지역에서, 2010년에 이어 지진피해 복구 사업 중입니다. 5개 지역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2개 지역에 농업관개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중부의 아누다라푸라, 트링코말리, 바우니아 3개 지역에서는 농업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7개 지역에 저수지 정비 및 관개수로 공사를 해서 농업용수 확보 및 농지 확

장을 껴했습니다.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에게 종자를 지원하고, 총 80여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건축하고, 25개 식수용 우물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보다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자연 재해라 하면, 일본 대지진이 단연 제일 먼저일 것입니다. JTS는 3월부터 일본 동북부 쓰나미 피해 지역에 즉각적인 긴급구호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의 오후나토, 리쿠젠타카타, 가마이시 등 290여개 대피소에 두유 10만개를 비롯하여 어린이 이유식 3톤, 자가발전 손전등 2만개, 구급함, 어린이 내복 등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8월 홍수 피해가 심각했던 경기도 광주시와 강남구 구룡마을에도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 해외 사업장과 국내의 어려운 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진행 중인 사업들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JTS의 행보에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후원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고, 더불어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 이사장 법륜 합장

인도남자라서 일까? 아니면 피임수술을 해야만 하는 동등한 상황이라면 모든 남자들이 그러할까?



원치 않는 임신은 이제 그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번 피임수술 진행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다. 피임수술에 참석한 36명 모두가 여자라는 사실. 남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인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여자의 2배 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인도남자라서 일까? 아니면 피임수술을 해야만 하는 동등한 상황이라면 모든 남자들이 그러할까? 나 자신부터 돌이켜 보자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지금으로써는 분명 YES, NO라 대답하기가 어렵다.

피임수술이 진행되는 2011년 11월 10일이 밝았다. 한국인 자원 활동가들과 인도인 스텝들은 수술에 차질 없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11월이 되자 이곳 동게스와리도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10월까지는 새벽녘에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며칠 안 되어 그새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아침 8시가 되니 전정각산 너머에 밝은 햇살이 비추었다. 접수는 8시부터 받기로 했는데 정각에 맞추어 오는 사람이 없다. 전날 늦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도 했고, 이곳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것은 늘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는 있었지만 수술당일에도 한참이나 늦게 나타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답답함이 밀려왔다. 30분이 지나고 한 두 사람이 오기 시작해서 10시 45분이 돼서야 전원이 출석했다. 다행인 것은 전날 9시까지 온다던 의료진도 11시 넘어서야 왔다는 점. 인도인에게 시간 개념은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접수처에 모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병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의 몫이다. 수자타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들은 6학년이 되면 오전에는 각 마을에 있는 수자타유치원 또는 건축파트와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수업을 받게 되어있다. 지바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자타 리더 학생들의 도움이 크다. 오늘도 리더학생들이 지바카 병원의 주인이 되어서 환자들을 가지런히 앉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 학생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줄에 맞게 앉히고 이어서 바로 접수를 통해 이름표를 지급하였다.



피임수술이 누구에게 쉽고 어렵냐를 떠나서, 책임감에 따른 어떤 본능적인 차이가 남자와 여자사이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수술을 받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문진에 들어간다. 문진을 받은 환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병원 입구의 노선을 따라 다음 과정인 면도를 하기 위하여 병원 복도 대기 장으로 이동 하였다.

환자들이 밖에 있을 때와는 달리 안으로 들어오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가정에서 담당했던 주부들이, 지금은 마치 죄를 지어 심판대에 오른 죄수들 마냥 얼굴들이 단단하게 굳은 채로, 긴 의자에 한 줄로 앉아서 의료진의 호명을 기다렸다.

의료진은 병원에서 준비한 다과를 간단히 즐긴 뒤 수술 준비에 임하였다. 병원 곳곳의 방들을 이용해서 면도실(수술부위를 깨끗이 작업하는 곳), 수술실, 소독실, 수면실로 나누었다. 수술을 위해서 평소에는 들어오지 않는 전기도 건축파트의 도움을 받아 전구를 설치해서 준비하였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곳곳에 전구를 밝히니 동게스와리의 큰 병원 지바카 병원이 그 제대로의 풍모를 찾은 느낌이 든다.

의료진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리더 학생들의 부름에 따라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도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두가 수술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긴 의자에 대기하고 앉아서 마지막 순서인 수술만을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자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8학년 린키와 핀키라는 여학생 두 명이 수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학생으로서의 배움이 최우선이지만 이곳에서 8학년 정도의 여학생이면 결혼 적령기인지라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래도 병원 사정을 잘 아는 학생 2명이 끝까지 있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자타 리더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가고 이내 피임수술이 진행 되었다. 환자의 순번에 맞게 1번부터 36번까지 차례로 정렬해 병원 복도 양쪽으로 가지런히 앉아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아줌마들 끼리끼리 모여 수다를 떠는 모습은 안보이고, 다들 안색이 검푸르다. 가뜰이나 피임수술 전에는 음식

물을 섭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스킷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다. 긴장한 그들에게 다소나마 긴장을 완화 시키려고 장난스러운 행동도 해가며 웃기려고 애를 썼다.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심각하던 얼굴들이 조금씩 나의 행동에 반응을 보여 왔다.

수술실에는 3대의 침대가 가지런히 놓여있었고 그 위에 환자들이 누워있었다. 환자의 몸위로 의료진의 손이 바빠 움직여 보였다. 찢고 꺾매고 피임수술을 전담하는 의사의 머리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남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이 보통일은 아닐 것이다. 어떤 느낌일까? 의료진은 틈틈이 보조자들을 통해서 수분을 취하고 시간이 되면 중간 중간 다과를 가졌다.

수술은 12시 반 무렵에 시작해서 4시가 조금 넘어 끝났다. 처음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단순히 긴장감만 가지고 있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수술을 받고 시체처럼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3시간이나 지켜야 했던 36번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라면 분명 공포에 못 이겨 뛰쳐나갔을 것이다.

피임수술의 경우 남자는 한 부위만 자르면 그만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난관이 두 곳이므로 두 곳을 절단해야 한다고 들었다. 분명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수술은 쉽다. 하지만 무분별한 출산율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각 하여 그것을 막고자 병원을 찾은 환자는 남자는 없고 모두가 여자라는 것, 묘한 생각이 들었다. 피임수술이 누구에게 쉽고 어렵냐를 떠나서, 책임감에 따른 어떤 본능적인 차이가 남자와 여자사이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파트의 다섯 명의 봉사자와 환자남편들로 갖추어진 환자 운송 팀은 4명이 한 팀으로 전부 3팀이 운영 되었다. 밖의 통로를 이용해서 36명의 환자들을 3시간 동안 1층 병원에서 2층 대강당의 각 환자들에게 지정된 자리로 이송했다. 들것에 눕혀 실려 가는 여인들의 모습은 수술 전에 나의 장난을 받아 주던 모습이 아닌 낯이 나간 한 인간의 생과 사를 연상케 했다.

피임 수술을 모두 마치고 나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보호자들을 환자들이 있는 장소로 올려 보냈다. 나도 뒤따라서 올라가 보았다. 커다란 강당에 양쪽으로 나뉘어져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다들 깊은 잠에 빠진 채 악몽이라도 꾸는 듯 무언가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 나는 퍼뜩 정신병동에 와 있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수술을 하기위해서 수술부위마다 녹는 마취주사의 영향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환자들 저마다 눈을 감지 않은 상태로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부르고 있으니, 그것을 듣는 나로서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새벽 정부병원에 의료진과 까미스워르지가 피임수술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사를 놓았다. 이후 미리 포장해 두었던 1주일분의 약을 배분 하면서 피임수술이 무사히 마쳤음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마취에서 풀려난 환자들은 수술부위가 아파 오는지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얼굴을 찌푸렸다. 보호자들은 이내 자기들이 부른 마차며 오토릭샤를 이용해 환자들을 이송했다.

이번 피임수술을 통해서 크게 느낀 것은 아이를 길러 온 어머니들의 정신력은 대단하다는 것이다. 내게는 두려워 보이기만 하던 그 수술을 그렇게 멀쩡히 받아 내다니... 피임수술에

참가한 여성들의 평균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평균 자녀수는 5명이였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가족계획 피임수술은 잘 마쳤다. 병원 업무를 맡은 뒤로 가장 큰 일을 치룬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흥분하면서도 더 이상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린다. 🌸

글 박명송 | 인도 JTS 의료팀장



10헥타르 농장주인을 꿈꾸며

2011년 11월 22~26일 필리핀 민다나오섬부키드논주, 리보나, 실리폰에 위치한 JTS 농업개발훈련센터에서 제1차 마을개발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JTS 학교 프로젝트가 진행된 7개 마을에서 27명의 참가자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키드논주 최남단에 위치한 다물룩시의 5개 마을-미카실리, 사라와곤, 발루드, 파곰퐁, 블루안과 센터가 위치한 리보나시의 2개 마을, 만타부, 알라원이 그 마을입니다.

JTS에서는 2003년부터 오지 마을에 교육 지원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책걸상과 책, 공책, 연필, 가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만으로는 마을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있고 학용품이 있어도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바쁜

농사일을 도와드려야해서 입니다. 또, 사람들이 마을로 가는 다리가 부서져서 다리 아래로 물을 건너가는 걸 보고 다리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 다리를 고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JTS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을 연구하여 전수할 농업개발훈련센터를 2010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내 마을



JTS에서는 2003년부터 오지 마을에 교육 지원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지었습니다.



을 위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먹고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고 하는 것 중에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1갑씩 태웁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하루 30페소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900페소가 모입니다. 1년이면 10,800페소가 됩니다. 그러면 1헥타르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헥타르의 농장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신교육 강사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우로 대학교육도 마치고 삶을 즐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닉보이치치가 제 삶의 모델입니다. 또, 47세의 뚱뚱한 아줌마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말에 사람들이 실소를 하지만 결국 음반을 내고 세계적인 가수가 된 수잔 보일이 제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의 모델이 됩니

다.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식민지시대를 보내고 해방 후 3년간의 6.25 남북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모델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희망을 가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가족도 할 수 있다.'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할 수 있다.' 주인의식, 도전의식, 책임감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꿈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식개혁 교육과 농업기술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밥을 주먹만하게 뭉쳐서 흙항아리에 담습니다. 항아리 입구를 종이와 그물망으로 봉해서 서늘한 대나무 밑에 묻습니다. 3일 후면 IMO1(토착미생물1)이 만들어집니다. IMO1을 가지고 비료도 만들 수 있고 살충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풀을 뽑습니다. 호미나 낫 같은 도구 없이 풀을 뽑아나갑니다. 풀은 자루에 담습니다. 이 풀은 잘게 잘라서 지렁이 분토를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데 쓰입니다. 자루와 삽을 들고 소똥을 주우러 갑니다. 소똥은 자른 풀, 마른 나뭇잎과 함께 섞어 지렁이 분토와 퇴비를 만드는데 씁

JTS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겐 희망이 있습니다.



니다.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가면 이번 훈련 기간에 직접 해본 IMO 만들기, 지렁이 분토 만들기, 퇴비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싼 비료나 살충제를 구입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들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생들의 소감입니다.

‘이제까지 풀은 쓸모없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풀을 잘게 잘라서 지렁이 분토도 만들 수 있고 퇴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것 같았어요. 강을 건너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가라앉기만 했어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세찬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변할 거예요. 내 아이들과 손주들이 가난으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비록 능력 없는 여자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을 같이 할 거예요.’

‘할 수 있다’를 외치며 10헥타르 농장 주인을 꿈꿉니다. ‘개척 정신’을 외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립니다. JTS 필리핀에서는 이들이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고 격려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글 송헌자 | 필리핀 JTS

희망의 씨앗, 법씨를 지원하다.



스리랑카는 점점 우기로 접어들고 있다. JTS 프로젝트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얼마 전 있었던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한다.

그 부담을 일부 덜게 하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농자재중 볏씨 분양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 곳 아누라다푸라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경주와 같이 고대 싱할리 왕국의 수도로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이곳을 보호하려고 많이 규제하는 편이어서 이곳에는 농업이외의 산업이 발달되기 힘들다.

그렇기에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있고 또, 소득수준 또한 상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있던 볏씨 분양으로 인해 사람들은 대형 트럭에 산더미처럼 볏씨를 가득 실었다. 많은 양 때문인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첫 마을을 끝내고 두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땐 나도 나서서 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다. 참엔 하지 말라고 손사래 치며 나서며 말리셨던 마을 어르신들께선 어느 순간부터 나르지 않고 내가 나르는 걸 손 놓고 구경하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나 혼자 거의 다 나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41kg 한포와 20.5kg 한포 즉, 60kg여가 한 가구가 받는 양이며 이렇게 아누라다푸라 2개 군, 5개 마을에서 110가구에 분배됐다. 이곳에서 이 볏씨는 중요하다.

당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곳 농민들의 형편엔 내년 농사를 위한 농자재 구입비용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농자재 상에 높은 이자로서 신용거래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해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많은 부분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쓰이고 또 현금이 없기에 다시 고리로 신용거래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그래서 그 부담을 일부 덜게 하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농자재중 볏씨 분양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볍씨를 내리고 분배하는 동안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 했다. 함께 나르고 쌓고 미처 오지 못한 이웃에게 가서 알리고 그 이웃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또 서로의 머리 위 나 자전거위에 올릴 때 도와주는 모습이 상당히 정겨웠다.

또 끝나고 고맙다고 수줍게 내미는 코코넛을 받았을 땐 마음이 짠했다. 없는 살림에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이 코코넛밖에 없지만 그 따뜻한

한 인정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뿌릴 씨앗은 단순한 볏씨가 아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다. 이 볏씨가 자라 내년에 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의 교복과 가방이 되고 아이들의 꿈이 될 것이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씨앗으로 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그들의 마을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길 빌어본다.

-2011 내 생애 무더운 첫 겨울, 아름다운 땅 아유보완 스리랑카에서, 고빈다 🌸

글 고빈다 | 스리랑카 JTS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안타까움도 가슴시림도 사라졌어. 교실안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이제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캄보디아로부터 온 편지 4

안녕, 연잎

지금 난 마을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야. 아직 가지 않은 수업의 여운을 그대로 전하고픈 마음은 산허리를 달려가며 위아래로 요동치는 차 안에서든 펜을 들게 해.



내가 갓 캄보디아에 도착했던 지난 6월. 전년도 사업장을 돌아보며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던 중, 한 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게 되었어. 국어, 수학, 사회가 전 과목인 교육환경에서 자생한 그림 그 자체보다 놀라웠던 것은 뽀뽀뽀한 선을 타고 똑바로 전해지는 아이들의 마음이었어.

순수했어. 감동이었어. 그러다 내가 받은 이 감동을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지더라고.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은 길지 않았어.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 바로 그것이었지.

결정이 난 일에 대해서 필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은 누워서 염주 돌리기였어. 미술수업을 진행할 선생님 섭외, 대표님과 본부의 결제, 주 교육청의 승인, 대상학교의 일정 공유 등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지. 차례차례 일을 진행해 가면서 청포도가 익어가는 내 고장 7월이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지. 그런데 그만. 마지막 단계인 일정 공유에서 예상했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해버리고 말았던 거야. 응. 학생들의 로망, 여름방학이었

던 거지. 그 즉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상황 속에서 비만큼은 꾸준히도 내리더라. 주르륵 주르륵.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빗줄기도, 기나긴 방학도 한 해를 넘길 수는 없는 모양인지 마침내 11월이 되니 끝이 났어. 그리고 그 끝은 미술 수업의 시작이었지.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눈빛들로 교실은 밤하늘만큼 빛나고 있었어. 그리고 밤하늘처럼 고요했어. 소리 없이 빛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보면 그 별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거나 한참을 머뭇거리던 끝에 재미만한 목소리로 겨우 겨우 이름을 얘기하곤 했어. 안타까웠어. 자기 이름조차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슴이 시렸어.

색연필을 이용한 첫 수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씩이었던 것 같아. 아이들은 서투른 손놀림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얼굴들. 시린 밤하늘처럼 굳어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녹아내리고 있었어.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수업.

처음엔 별이었다가 그 다음엔 꽃으로 피어난 아이들은 마침내 그냥 아이들이 되었어. 별을 닮은 두 눈과 설 새 없이 피워내는 웃음꽃으로 더 없이 충분한 아이들이었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이들이었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연에서 자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거란 생각이 들었어. 거칠고 투박한 날 것 그대로인 모습. 그러나 변화에 그 무엇보다 유연한 모습.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야.



아직도 내 마음은 학교 복도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던 아이들의 모습에 멈춰있어. 스스로 그리고 오려서 만든 동물가면을 얼굴에 쓰고 환하게 미소 짓던 그 모습이 차창에 맺혀있는 것만 같아. 언제 그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려는지 알 수 없겠지만 다시 만나는 그 날에도 서로를 향해 밝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안타까움도 가슴시림도 사라졌어. 교실안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이제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가 마음으로 들리었어.

두 번째 수업에서 생전 처음 만진 물감으로 한 송이 한 송이 조심스레 꽃을 피워내는 아이들은 그 어떤 화가보다 진지했어. 그 모습은 세상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고, 저마다 피워 낸 환한 미소로 교실은 온통 꽃밭이었어.



당신과도 뜨겁게 만날 그날을 기다려. 오늘도 웃으며. 안녕. 🌸

글 정훈재 | 캄보디아 JTS

이정도면 여기에선 깨끗한 물이에요! - 루북바송지역 식수지원사업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내가 아직도 적응 못 하는걸 언급하라면 첫째 개미떼 습격, 둘째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전기, 셋째 비위생적인 물이다.

개미떼의 습격은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들을 내가 조금만 더 움직여 그때 그때 정리하면 줄일 수 있고, 특히나 나는 전기도 조금 쉬었다 하라는 그 어떤 계시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마시는 물이 비위생적인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식수 공급처는 우물이다. 물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식수지원방식이 달라지고 세세하게는 파는 위치부터 깊이까지 모든게 달라진다.



그런데 사실 우물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깊이에 한계가 있어 식수로 쓸 만큼 깨끗한 물을 얻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위치도 일상적으로 대소변을 보는 장소에서 몇미터 떨어져있지도 않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그래서 3개 유치원은 땅속 깊이 파이프를 묻고 모터로 물을

특히 초대받은 집에서 내온 커피나 차에서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올 땐 정말 난감하다. 하긴 마시는 우물 물에 물고기들이 노닐고 있으니, 어항 물로 커피 타준것과 뭐가 다르랴. 그러나 뿌옇고 냄새가 나도 별 탈 없다고 생각하는 현지인과 삼천리 금수강산의 청정수를 생각하는 나 사이엔 확실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엔 유치원 공사뿐만 아니라 식수지원사업도 있다. 우리가 새로 짓고 있는 5개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데 3개 유치원은 지하수 굴착, 1개 유치원은 우물지원, 나머지 1개 유치원은 상수시설 지원이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식수 공급처는 우물이다. 지하수 굴착을 하려면 인건비나 자재비나 전기가 안들어가는 지역은 자가발전기까지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우물은 그냥 동네사람들 뗏이 모여 5~6m 정도만 파도 식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고있다.

끌어올려 그 물을 물탱크에 받아 사용하는 지하수 굴착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암반층을 뚫고 들어가 청정암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다지만 이 지역은 암반층이 없기 때문에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량이 풍부해지는 깊이까지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들어간 깊이가 30~40m 정도 되는데 사실 한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깊이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제법 들어간 깊이에 속하고 주민들도 그 이상 파들어가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2개 유치원은 각각 우물과 상수시설을 지원하였다. 우물지원을 한 마을은 기존에 우물이 있지만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라 주민들은 우물을 다시 살리길 원했다.

나는 아예 지하수 굴착을 원했지만 가까운 곳에 특별한 오염원도 없고 수량도 나름 풍부해 기존의 우물을 재활용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으

로 합의를 보았다. 대신에 깊이를 더 파고 대형 콘크리트관을 묻어 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한 지역 또한 상류에 있는 호수로부터 내려오는 상수시설이 이미 이 마을까지 들어와있고 상수시설의 여러가지 편의성들을 감안해 상수시설지원으로 의견을모았다.

동네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식수 지원사업을 하며 마을사람들과 느꼈던 가장 큰 인식의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식수가 될 만큼 깨끗한 물의 기준이다.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 크게는 식수지원방식이 달라지고 세세하게는 파는 위치부터 깊이까지 모든게 달라진다.

“한반도와 수마트라라는 서로 다른환경 에서 수십년을 살아왔으니 어찌 다르지않으랴”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현지인들의 식수기준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건 사실이다.



어쨌든 아직까지 이 지역 지하수 상황에 대한 연구자료도 없고 우물물 오염수치, 오염 매개체 그로 인한 각종 질병사례등의 자료들도 미비한건 사실이다. 현지 관계기관도 피부깊숙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식수지원뿐만이 아닌 식수개선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의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글 임희성 | 인도네시아 JTS



JTS 송년캠페인 모두 우리아이입니다.

정리 편집부

2011년 마무리하며 JTS 송년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120여곳에서 1,00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아시아 어린이 빈곤 퇴치를 위한 거리모금을 뜨겁게 진행하였습니다.

JTS거리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추운 날씨에도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캠페인을 진행해주신 JTS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다.

- 조인투게더 서포터즈 거리모금 후기

한국 JTS 김세현

“눈이 오는 거 아닐까?”

이 날은 그만큼 추웠다.OD하였습니다.

눈이 오는 걸 자연스럽게 상상해도 어색하지 않을 날씨였다.

“오늘 같이 추운 날 눈이 온다면 안에 들어가고 싶겠지?”

하지만, 오늘은 명동 길거리에서 모금캠페인을 하는 날이었다.

한국JTS 자원봉사자들과 조인투게더 서포터즈 1기와 함께 하는

모금캠페인, 어찌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수요일, 잠깐 봤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난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게 도와줘야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모금 캠페인이 처음인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었다.

조인투게더 서포터즈 1기와 한국JTS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인 한 가운데, 조 인원이 나뉜 종이 배분되었다. 난 7명의 오늘 캠페인을 책임지는 한 조의 조장이었다.

5조- 김세현 ... ?

5조- 김세현 (7명과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사람.)

종이를 받아든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이름 옆에는 “7명과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책임감이란 애매모호한 것이 오랜만에 생겼다.

서포터즈를 총괄하는 최선희씨가 조를 배정하였고 5조는 맨 구석자리에서 잠깐의 만남을 가졌다. 우린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나누고, 약간의 썰렁한 시간도 가졌다. 나는 조장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고 싶었고, 우리조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끌어내고 싶었다.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사람들은 약소하게나마 웃는 표정을 지었다. 30분도 안 되는 동안 나는 5조의 모든 사람들과 어색한 모습을 지울 수 있었다.

그렇게 5조와의 친해지는 시간을 뒤로한 채, 우리는 방송연예인 봉사단 '길벗' 소속인 노희경작가의 명동 거리 모금 캠페인의 사전 설명을 들었다. 북한 아이들이 JTS의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모금 캠페인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었다. 우리가 모금한 것들이 실제로 쓰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장으로서 내가 조언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노희경씨가 대신 해주어서 다행이었다.





노희경씨의 사전설명이 끝나고 우리는 길벗 분들과 함께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 5조는 무대 앞에서 시작해 을지로입구역 부근을 움직이기로 했다. 8명이었던 우리는 2명씩 조를 짜서 을지로역 출구와 역 안쪽 그리고 가능하면 명동역 거리까지 곳곳을 움직였다.



나는 조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모든 구역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조원들을 만나면 아주 반가워서 서로 웃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나는 기어코 모금함을 보고야 말았다.

“.....내가 제일 모금액수가 적구나.”

나는 조원들을 살펴보다가 제일 중요한 모금을 잊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모금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다른 조들을 보게 되었다. 조장과 조원 모두 같이 움직이면서 모금을 하고 있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높여서 하는 모금은 모금 액수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구나 싶었다. 그들이 움직인 자리는 여럿이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모금이 끝나고, 자리를 옮겨서 거리 모금 캠페인의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 모금을 했을 때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를 보지 않고 다른 제 3세계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나? 오늘 모금을 하면서 느꼈어요. 왜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가. 똑같은 사람인데 잠시 지금은 우리와 다른 환경일 뿐이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말을 이었다.

“모금 캠페인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JTS와 거리에서, 캠퍼



미국 JTS 송년 캠페인 "북한어린이들에게 선물상자 보내기"

미국 JTS 임금이

미국 JTS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추위에 놓여 있는 북한 전역 53개 시설 12,000여명의 어린이들이 겨울 한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양식품과 겨울 의류가 담긴 "사랑의 선물상자 보내기" 캠페인을 미주 정토회와 함께 12월 한달동안 진행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시애틀, 엘에이,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위스콘신, 오하이오, 시카고, 알라바마, 콜롬부스,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플로리다, 하와이 지역에서 후원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총 \$45,657.52 이 모금 되어 1141명의 북한어린이들에게 선물상자 (\$40) 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난 12월 한달간 Seattle에서는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정토회 불대생 그리고 청년회원들 중심으로 JTS 거리 모금을 진행 하였습니다. 모금은 매주 토요일 4시간 가량 두 장소를 번갈아 가며 진행 되었으며 모금액은 총 \$ 1,109 달러가 모아져서 JTS 에 보내 졌습니다.



다들 처음 해보는 거리 모금이라 처음엔 어색해 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는데..마지막 쯤엔 자신있게 모금도 하고 JTS에 대해 설명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추운데도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이렇게 큰 복을 지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JTS에 감사 드립니다." **Seattle지부 김미경**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산호세 갤러리아 마트, 푸드코트 앞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에 6명이 참가하여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안내를 세워놓는 보드 2종 제작, 캠페인 안내전단 150여 장, JTS 안내전단 (한글, 영문판 2종) 200 여장을 배포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는 개인별로 모금함을 소지하고 어깨띠를 착용하여 한인동포 및 현지인에게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거리모금 캠페인을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정기적으로 또는 이벤트별로 진행하여 JTS 를 꾸준히 알려 나가면 좋겠다. 모금에 동참하고자 하나 JTS 의 인지도에 따라 모금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거리모금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이었고 수행의 한 방편으로 좋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줘 뿌듯하고 즐거운 하루였다.” 라며 소감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지부 허성호**

2011년 JTS를 후원해 주신 분들과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고 후원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올 겨울을 잘 견디어 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들을 선물상자에 담아 보냅니다. ❀

[화도마리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 모금활동

김미현



〈출발하기에 앞서 기념사진〉

제가요, 화도마리 지역아동센터 교사이기도 한데요~ 공부방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치회의를 하는데, 이번 달 자치회의에서는 북한 어린이들과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지구촌 친구들을 위해 모금을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공부방에 부스를 설치해 놓으니, 1000원

을 집어넣는 아이도 있고, 100원, 500원을 집어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뭘 사먹고 오고 싶었는데요, 북한 어린이 5명에게 영양식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참고 그냥 왔어요." 공부방 오는 길에 있는 참새 방아갓을 지나면서 했을 같듯이 그려지고, 그 마음 이겨내고 온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센터장님이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금활동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시네요. 아이들도 좋아라하고, 그래서 화도농협이랑 화도주민자치센터, 화도터미널주변에서 캠페인과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전단을 돌리면서 모금을 해 봅니다.

농협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만원, 오천원, 천원.....다 웃으시면서 주십니다. 전단지도 열심히 받아주시구요.

덕분에 아이들이 신이 납니다. 쭈뼛거리기도 했는데.... 쑥쓰러웠던 마음도 멀리 달아 납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송을 다시 한 번 부를 때는 박수도 함께 쳐주시고, 노래도 따라 해 보기도 하시네요.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갑니다. 먼저 캠페인 송을 부르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 때 배워야 합니다."도 외쳐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하면 안돼요?" "나 세탁소 아저씨 잘 아는데, 세탁소에 가서 할래요." "나 고깃집에 가서 해 볼래요."여기저기 해 보겠노라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마침 화도장날이나 터미널부근에는 장이 썩는데요, 아이들은 그 아저씨 아줌마들 한 분도 빠지 않고 다 전단지를 돌리고 모금함을 들고 다가섭니다. 여기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1000원, 10000원..... 이날 화도터미널 주변 모든 상가는 JTS전단지를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돌아와서 세어보니 167,200원입니다. 앞다투어 마음나누기도 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재미있었어요." "장사가 안된다고 나가라고 할 때는 난처했어요." "미용실에서 주인이랑 손님이랑 여섯명이 다~줄 때 기분이 짱이었어요."



아이들과 해보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합니다. 굶주리는 아이들 동영상을 보면서 금새 보살의 마음을 냅니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 보면서 감동하면서 흥분하는 나를 봅니다. ❀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선물



JTS '4°C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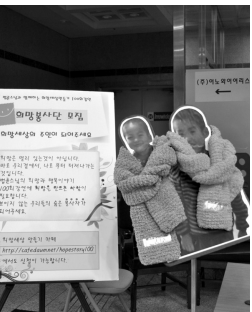
JTS '4°C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캠페인의 체험프로그램인 '희망의 목도리 뜨기'를 지난해 12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목도리는 북한 전역 고아원 어린이 7,000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운겨울 북한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한뼘한뼘 짜주신 JTS 후원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C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캠페인은 홈페이지에서 연중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북한 어린이보다 우리가 먼저 따뜻해졌다.

유필녀 한국JTS 충청지부

고1때 짜보고 28년만에 잡은 뜨개바늘과 털실. 시간은 짧지 않았다. 두 개이던 대바늘은 이어져 한뼘이 되었고 털실은 북실북실 보드랍고 포근했다. 뜨개질이 수월해지고 서툰숨씨도 가려진다. 서로바빠 모이지 못했던 아줌마들 어렵게 마음내어 털실과 바늘앞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짜는데도 어제 짓던 거미줄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여섯 코를 지어내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듯 손따로 입따로 처음에는 열여섯코는 끝까지 지켜냈지만 160센치는 자신이 없었다.(목도리 짜기 규격이 있음, 16코, 160cm 편집자주) 한코 한코 쌓여가고 뜨개실뭉치가 풀어지듯 마음이 풀어지고 이야기도 쌓여갔다. 학창시절로 돌아간듯 마음에 빠졌다가 한 단한단 코가 올라가면서 몽실몽실한 목도리의 느낌이 순간 와 닿았다.



목도리 짜려고 아줌마들이 모인 이 순간 저멀리 너머있는 북한 어린이의 추운마음이 와닿았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전해질것을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울컥~~ 싸아~~

눈보라치는 지난 금요일저녁은 한국JTS 충청지부 아산지역 거리모금 캠페인 날 서로가 짠 목도리 하나씩 두르고서 온양온천 기차역 앞에서 아줌마 넷이 모였다. 테치블위에 진열도 몇 개하고~ “먹을것이 없어서 굶고있는 북한어린이를 도와주세요” 땀손에 모금함을 들고 있자니 금새 손이 시리다. 북한은 더 많이 추울텐데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꼬르르륵...

추운데다 배고프기까지 하다니 북한어린이는 더 많이 춥고 배고플텐데 “먹을것이 없어서 굶고있는 북한어린이를 도와주세요” 한번 더 씩씩하게 외쳐본다. 오늘처럼 겨울바람 매서운날에 남한 곳곳에서 각기 다른이가 짤 수많은 목도리들 북한어린이의 목에 둘러질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먼저 따뜻해졌다.

대바늘 두 개가 하나로이어져 목도리를 만들듯이 하루속히 남쪽과 북쪽이 이어져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메리크리스마스!!!

희망의 목도리를 한올한올 뜨면서...

정순자 한국JTS 대구지부

11월 중순이 막 접어들 무렵 JTS에서 북한 어린이를 위한 희망의 목도리 캠페인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언뜻 마음을 내지 않았던 평소 때와는 달리 이 일에는 열심히 임해보자는 마음을 다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데는 몇 년 전에 허리수술을 받고 회복차 집에서만 칩거하고 있을 때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을 그나마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프리카 난민 신생아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털모자' 짜기 운동에 동참한 연유 때문이었다. 그때 우연히 EBS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아프리카 난민 가족 중 태어난 신생아들이 산모들의 굶주림 때문에 수유도 잘 받을 수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열대지방 특유의 낮밤의 기온차에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그 기온차를 이기지 못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난민들이다보니 변변한 옷가지, 이불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NGO 단체에서 그 아기들을 위해서 따뜻한 털모자라도 각자 1개씩 떠서 보내자라는 캠페인을 EBS방송을 통해서 보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3개의 모자를 떠서 보냈었다. 당시 털실 뜨기에 거의 초보였던 나는 지인 박순형님에게 전화로 물어서 그 일을 겨우 완성했었다. 그 모자뜨기에 비하면 이 목도리는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동했다.

우선 목도리 1개분량의 실을 분양받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옆의 도반들과 함께 짜보니 너무 재미있었다. 그날 집에 와서 계속 몰두해가면서 짜다가 새벽 2시쯤에 그것을 완성했다. 다음날 JTS 사무실 가서 또 목도리 뜨기를 했다. 다각실에 모여 정담을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뜨는 이 한올 한올의 정성이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정말 희망의 목도리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열심히 하나하나씩을 완성해 나갔다.

법륜스님의 대구 강연행사에 가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목도리를 대구 시민들이 쉽게 뜰 수 있도록 가르쳐도 주었다. '희망의 목도리' 뜨기에 동참함으로써 2011년 신묘년을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쁘고 무엇보다도 힘든 고통의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어서 가슴 뿌듯하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따뜻한 목도리를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인자 한국JTS 청주지부

희망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청주지부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목도리키트를 주문하여 실을 받은 후 목도리 짜는 방법과 함께 실을 가져가면 기록을 부탁하는 문구를 작성해서 붙여놓고 희망목도리 개인 접수대장과 모금함을 옆에 놓고 시작했다.





실 받은 지 5일 만에 목도리 200개 물량이 다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작성되어있는 숫자는 191개인데 목도리 200개 물량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싶어 걱정이 되었는데 총무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냥 믿는 마음으로 밀고 나아갔다. 목도리 뜨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재미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앉아 뜨개질을 하는 자기모습도 보고, 집중력도 키워지고 좋다는 분, 북한 동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하다는 분, 내가 5개 물량의 목도리를 가지고 나아가 3개를 분양하시고 2개밖에 못 뗐다는 분, 재미있게 하하 호호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흐뭇했다.

실이 나간지 이틀이 되면서 목도리를 완성시켜 오셨고, 나중에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 처음에 문제가 되어 비었던 9개의 목도리키트가 나중엔 다 들어왔고, 200개의 목도리를 다 채울 수 있었다. JTS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수거와 보수, JTS라벨 마무리 까지 분업화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모자이크 붓다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다. 코 빠집은 기본이고 앞머리는 넓고 뒷부분에서 좁아지는 목도리와 중간에 코를 빼먹어 허리부터 가늘어지는 목도리, 웬지 툭툭하고 부드러운 목도리가 있는가 하면 너무 험령하게 떠서 18코가 되어 보이는 목도리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끝낼 수 있었다. 목도리 금액을 묻고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 자발적으로 후원하신분이 많이 계셨다. 일부 사람들은 300배 정진과 함께 큰 목돈을 후원하셔서 희망목도리 캠페인 담당자로서 큰 감동을 받았다.

추후에 자원봉사자들이 50개를 추가해서 더 뗐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JTS 사무실에 자주모여앉아, JTS홍보 영상을 보면서 작업하시는 모습에 보기도 좋았고 12월 초에 1차로 희망목도리 200개를 울산 두복 JTS 창고로 보냈다.(JTS 창고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여 북한으로 보내진다. 편집자주) 그때 마음은 매우 뿌듯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따뜻한 희망 목도리를 보낼 수 있어 행복했고, 희망의 목도리를 받은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기원합니다. ❀

아이같이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강나영 한국JTS 대전지부

주말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서도 이 날만은 일기예보가 틀리길 바랐습니다. 노인 잔치날 아침 두복으로 가는 길... 잔뜩 찌푸린 날씨가 조금은 아속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노인잔치를 위해 모인 여러 봉사자들은 간단하게 자신들이 맡을 소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든 어르신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명심문과 함께 분주히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각각 팀을 나누어 여러 마을로 출발~! 어르신들을 맞이하기 위한 접수대를 마련한 곳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의 운동장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조금씩 질척거리졌고 혹시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얼른 임시방편으로 종이 상자들을 뜯어 오시는 길에 밟으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편 공양간과 안쪽 방에서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테이블에 미리 음식들을 차려놓으시느라 쉴 새 없이 바빴습니다.

드디어 차 한 대가 교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접수대의 모든 봉사자들은 방긋 웃으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시며 안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도착하시자 어느새 행사장 안이 가득해졌습니다.





비오는 날씨 때문에 오시는 분이 적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비오는 날씨로 마지막 추수가 한창인 때 어르신들은 하시던 일손을 잠시 쉬시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각방에 준비하고 있던 봉사자들의 손과 발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부족한 음식은 없으신지 살펴가며 어른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사 후 여러 마을의 장기 자랑…….동네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가수 어르신들은 신명나게 노래도 부르시고 흥에 겨워서 어깨춤을 들썩이며 일어서서 춤도 추셨습니다. 오랜 농사일로 허리도 다리도 아프시다며 일어서지는 못하시고 크게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흥이 한창 오를 무렵 사물놀이패의 신나는 사물놀이…….잔칫집 분위기 한 번 제대로 납니다. 역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어르신들께 준비한 작은 선물 하나씩을 전해 드리자 “아이고…….이래 잘 묵고 잘 놀고 또 선물까지 주고 참말로 고맙습니데이”하시며 인사를 하시며 두 손 꼭 잡아 주시는 어느 할머니. 내가 줄게 이것 밖에 없다며 기어이 싹짓돈을 던지듯 놓고 가시는 어르신. 안에서 안타깝게도 마이크를 잡지 못했더니 기어코 노래 한 자락을 부르시는 할아버지 모두들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시며 아이같이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가는 차에 오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시골에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에 잠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되려 하게 되고 행사를 마칠 때에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득 안게 되고 더 없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졌습니다. 🌸

두북어르신잔치

·2011년 11월 6일 진행
·울산 두북 14개 마을
어르신 175명 참석

즐거움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주변을 행복하게 합니다.

추운 날씨에 발걸음이 바쁜 사람들에게 인사동 거리 한복판에서 북한동포 어린이와 배고픔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모금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인터뷰날도 거리모금을 하고 만났다. 추운 날씨 속에서 봉사의 열정을 온 몸으로 실천하시는 류연주님을 만나보자.

인터뷰 : 류연주



Jts: 봉사활동 말고 밖에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네, 여성들이 즐겨 입는 기능성 속옷을 남부 티미널 국제 전자상가 아케이트에서 팔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불자 분 소개로 정토회를 알게 되었구요,

Jts: 1년 동안 JTS 봉사 활동을 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류연주: 그냥 마음을 내서 움직여요. 마음 내서 하게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날씨가 춥든 말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해요. 또 한의원을 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 먹이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신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것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또,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남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 더 정진할 수 있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봉사하면서 그 즐거움은 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즐거우니까 주변 사람도 다 즐거워지잖아요. 나도 행복해지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Jts: 그런데 왜 여러 봉사 활동 중에 특히 Jts 활동을 선택 하셨나요?

류연주: 복지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는 고아원을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간절해요. 그런데 Jts에서 북한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아팠어요.

그래서 Jts에서 활동하면서 종교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후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JTS가 정식으로 UN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Jts: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모금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류연주: 서울지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어요. 그런데 Jts에서 1년, 2년씩 있으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

를 듣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뭐했나싶고. '아이고, 세상 헛살았구나, 실패해라. 세상에! 결혼 할 나인데 결혼같은 건 생각도 안하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해외로 가서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스스로 갔다는 것은 마음을 냈기 때문에 간 거지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잖아요. 명령에 의해 시켜서 한 것이 아닌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이 진짜 봉사죠. 봉사를 예전부터 즐겨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리모금도 즐겁게 잘 하고 있어요. JTS를 늦게 만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2005년도에 여기 왔었어요. 제가 다른 사찰 다닐 때 정토회 다니시는 분이 "집에 옷 많지요? JTS라는 단체가 있는데 티벳이나 해외에 기부하는 옷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길래 서너 박스를 JTS에 가져 왔어요. 그 때 처음 왔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활동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Jts: 1년 동안 Jts 거리모금을 1년 내내 하신거죠?

류연주: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두 번씩하고 있어요. 요즘은 목도리 뜨기도 하구요. 다른 분들 못하신 거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원래 16코가 되어야 하는데 하다보면 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짐작하면서 집중해야 되요. 그리고 뜨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잡생각이 없는 거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걸 세어가면서 뜨니까 잡념이 사라져요. 또 이걸 뜨면서도 '어떤 애기가 내가 뜬 것을 목에다 하겠다. 나도 자식을 뜨게질해서 목도리 한번 안 둘러봐 줘는데 그래도 너는 한겨울 따뜻하게 나겠구나' 하면서 뜨면서 이렇게 대봐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만 잘 자라다오.' 그런 마음으로 떠요.

Jts: 거리모금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나요?

류연주: 사실 저두 자선냄비에 넣기만 해 봤지 직접 모금하는 건 처음 해 봤어요. 그게 막상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인사동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마이크를 잡지요. 일찌감치 와서 세팅을 해서 모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뜻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도망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Jts라는 의미라도 알려주려고 팸플릿만 드리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돼지저금통을 쥐서 "여기다가 꼭 차면 이름 쓰고 해서 은행에다 가져다주면 되요" 얘기해줘요. 오늘도 돼지저금통 몇 개 학생들에게 줬어요. 오늘은 날씨가 차니까 사람들 마음도 추워요. 날씨가 좋은 날은 서로 웃으면서 선뜻 모금함에 넣어주는데 오늘은 제일 적게 됐어요. 12월은 매주 마다 나오자 그랬더니 캠페인 담당자가 고맙대요. 그런데 저는 마음내서 하는 건 다 괜찮은 거라고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Jts에서 제가 도와드릴 일은 거리모금밖에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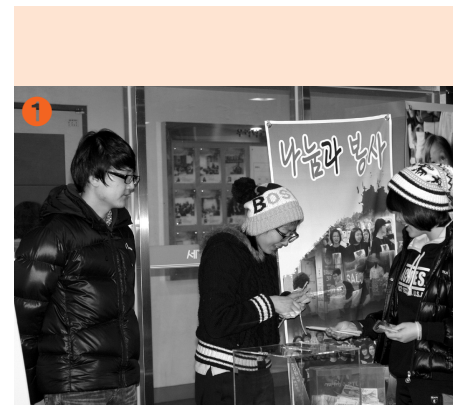
국내소식

Jts: Jts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류연주:Jts가 17~18년 됐는데 제가 특별히 무슨 바라는 일이 있겠어요? 단지 제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 마무리가 되면 법륜스님의 한 축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거죠.

Jts는 워낙 각 부서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은 정기적인 후원을 더욱 양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봉사 활동하는 모습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만큼 건강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뒷정리도 정확하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라 주었으면 하는 류연주님의 서원은 이 세상에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1. 광주과학고 JTS 동아리 '한꾸네' 북카페와 모금 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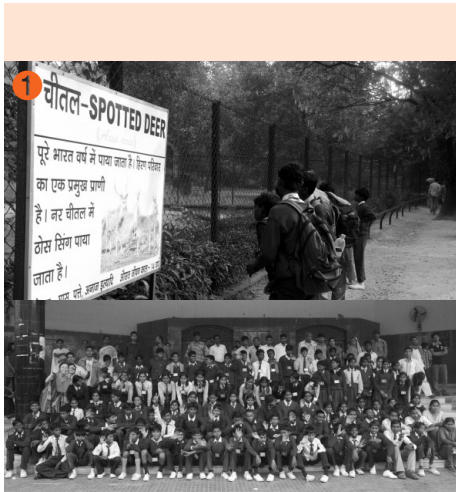
광주과학고 JTS 동아리 '한꾸네'는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교내에서 열리는 빛소리축제에 북카페와 아시아 어린이 빈곤퇴치를 위한 모금부스를 운영하였다. 북카페에서는 교사와 선배들에게 기증받은 책을 팔기도 하고 점심과 저녁시간에 커피와 핫초코를 팔았고 공연 행사장인 강당 앞에서는 모금 부스를 운영하였다. 북카페수익금이 363,000원이고 모금은 90,060입니다. 전교생이 160여명인데 적지않은 금액이다. 이 모금액은 필리핀 어린이를 위한 학용품, 급식 지원을 위해 JTS에 기부하였다. '한꾸네' 동아리 회원 11명의 학생과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동참해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 광주과학고 학생들께 감사드린다.



2. 일산 중산중학교, JTS 사랑의 저금통 후원

일산 중산중학교는 벌써 3년 째 전교생이 저금통을 모아 JTS에 기부하고 있다. 이번에도 추석을 지나면서 저금통을 모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동전세고 JTS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193,010원을 모금하였으며 이 모금액은 모두 캄보디아 학교짓기에 쓰여질 예정이다. 교장, 교감선생님께서서는 다른 학교에 가서 재직하셔도 JTS를 후원하겠다는 약속도 해주다. 해마다 저금통 분양을 통해 굶주리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동참해주시는 일산중학교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인도소식



1. 수자타 아카데미

1. 비하르의 주도 파트너를 찾다.

- 11월 5일 수자타아카데미 5학년 파트너 수학여행

4시간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버스로 가는 수학여행이지만 마냥 신났습니다. 옆 친구들이 멀미를 하고 울기도 해서 좀 안타까웠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어다녀서 마음이 놓였지요. 5학년 친구들 100명과 선생님들 한국인 시스터, 브라더까지 함께해서 더 좋았어요. 동물원에서 생전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을 보기도 하고 천문관에서 별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진 도시락도 친구들과 나눠먹었어요. 밖에서 먹으니 더 맛있지 뭐예요? 피곤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답니다.

2. 구걸하지 않고 매일 학교에 갈 거예요!!

- 10월 31일 ~ 11월 30일 구걸방지 캠페인

올해 구걸방지 캠페인은 좀 특별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포스터도 만들고 그 포스터를 들고 마을을 돌며 행진을 했어요. "우리 마을 우리 힘으로 행복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부모님과 회의도 해봤어요. 특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토요 쉬람단(공동 울력)으로 마을 청소를 했는데요 깨끗해진 마을을 보니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 아직도 구걸하러 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 명의 아이도 구걸하지 않을 날이 오겠지요.

3. 어린이는 나라의 주인~

- 11월 14일 어린이날 행사와 달리기 대회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선생님들과 한국인 브라더, 시스터들이 공연을 준비했어요. 춤, 노래, 연극 그리고 생전 처음 본 건데 난타라는 공연까지요. 생소했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빵과 과일도 먹구요 발 시려왔는데 양말을 선물로 받아서 너무 좋았답니다. 무엇보다 달리기 대회에서 1등한 아이들과 글짓기 대회에서 뽑힌 친구들은 푸짐한 특별 선물까지 받았으니 오늘 복이 터진 날이지요? 저도 내년에는 꼭 달리기 대회에서 1등 할거예요.



4. 추워도 올 겨울은 끄떡없습니다.

- 11월 1일 스웨터, 운동화 지원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겨울옷이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씀!! 인도의 겨울은 유독 더 춥대요. 아침에 일어나 얇은 교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오는 길은 정말이지 너무 춥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받은 스웨터와 운동화가 있어서 다행이지요. 스웨터는 1학년 4학년 7학년 총 400여 명의 친구들이, 그리고 운동화는 전 학년 800여 명이 받았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우리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추워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학교에 가겠습니다.

5.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8월 9일 수요일, 제 5회 장학금 지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이 벌써 5회를 맞았습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중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 총 스무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물품으로는 쌀 10~12킬로그램, 달(인도인이 즐겨먹는 음식 재료) 3킬로그램, 오일 2병입니다. 한 달에 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이지만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소식

새나눔회원 _ 개인·단체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011년 10월1일-2011년 11월30일

문의전화 02-587-8995

결핵퇴치

강득록 P0059918	김성진 P0061715
강혜선 P0061931	김성철 P0061010
고은혜 P0060418	김수진 P0061941
길민정 P0061553	김순옥 P0033932
김문웅 P0060259	김연용 P0061604
김성심 P0060857	김영재 P0060812
김연용 P0061604	김영훈 P0061011
김유라 P0060568	김용근 P0053790
김정희 P0044070	김유라 P0060568
김현진 P0061391	김윤경 P0060079
문정화 P0061418	김은주 P0061497
박영애 P0037687	김이식 P0060814
박준하 P0048776	김일명 P0050654
박현이 P0003243	고수진 P0060802
백숙희 P0060832	고은혜 P0060418
백영호 P0058567	김주은 P0060818
부유덕 P0060685	고정주 P0008591
손혜원 P0060756	권시훈 P0061567
시지원 P0060419	권태윤 P0029090
안화숙 P0051485	권해춘 P0060614
여효선 P0060346	김민주 P0061387
오순석 P0060610	김민정 P0061553
유정민 P0060750	김경희 P0061000
윤인선 P0061200	김금옥 P0060815
윤현숙 P0051514	김기숙 P0059637
이도영 P0061722	김기욱 P0061086
이예림 P0045714	김기태 P0060864
이용숙 P0055390	김길자 P0061090
이원형 P0049303	김다혜 P0060836
임성훈 P0061421	김명희 P0055916
임정훈 P0060049	김문웅 P0060259
정창훈 P0061087	김미래 P0061015
조도연 P0061158	김미숙 P0061016
조성혜 P0061485	김미연 P0060449
조혜영 P0060849	김미정 P0061706
최인희 P0060806	김범준 P0060348
함현정 P0054286	김보승 P0061074
허용도신경외과 P0060612	김보영 P0061258
	김선진 P0061137
	김성심 P0060857
	김성옥 P0047415
	박정신 P0061544
	박주희 P0061848

인도및기타후원

(재)희망제작소 P0062261	김성철 P0061010
(주)타이거우드 P0062073	김수진 P0061941
강권식 P0060656	김순옥 P0033932
강득록 P0059918	김연용 P0061604
강민주 P0061428	김영재 P0060812
강영미 P0060865	김영훈 P0061011
강정해 P0060623	김용근 P0053790
강혜정 P0059927	김유라 P0060568
고민정 P0061029	김윤경 P0060079
고수진 P0060802	김은주 P0061497
고은혜 P0060418	김이식 P0060814
고정주 P0008591	김일명 P0050654
권시훈 P0061567	고수진 P0060802
권태윤 P0029090	고은혜 P0060418
권해춘 P0060614	김주은 P0060818
김민주 P0061387	고정주 P0008591
김민정 P0061553	권시훈 P0061567
김경희 P0061000	권태윤 P0029090
김금옥 P0060815	권해춘 P0060614
김기숙 P0059637	김민주 P0061387
김기욱 P0061086	김민정 P0061553
김기태 P0060864	김경희 P0061000
김길자 P0061090	김금옥 P0060815
김다혜 P0060836	김기숙 P0059637
김명희 P0055916	김기욱 P0061086
김문웅 P0060259	김기태 P0060864
김미래 P0061015	김길자 P0061090
김미숙 P0061016	김다혜 P0060836
김미연 P0060449	김명희 P0055916
김미정 P0061706	김문웅 P0060259
김범준 P0060348	김미래 P0061015
김보승 P0061074	김미숙 P0061016
김보영 P0061258	김미연 P0060449
김선진 P0061137	김미정 P0061706
김성심 P0060857	김범준 P0060348
김성옥 P0047415	김보승 P0061074
	김보영 P0061258
	김선진 P0061137
	김성심 P0060857
	김성옥 P0047415
	박정신 P0061544
	박주희 P0061848

박준하 P0048776	양성균 P0061606	이창빈 P0061260
박준형 P0061135	양창호 P0062015	임경환 P0060350
박지영 P0060977	양호영 P0060893	임성훈 P0061421
박지현 P0061412	어효선 P0060346	임쌍학 P0061024
박현이 P0003243	염종우 P0061009	임유진 P0060794
박현정 P0061699	오석윤 P0061012	임정훈 P0060049
박혜란 P0038960	오승곤 P0060239	임채원 P0060248
박홍권 P0060811	유현실 P0046334	장강석 P0060816
박희준 P0007659	윤미라 P0060314	장금호 P0052312
배국원 P0060260	윤미숙 P0061155	장민서 P0060758
배금향 P0045897	윤상현 P0061156	장순미 P0061091
백숙희 P0060832	윤현숙 P0051514	장순희 P0060994
백순오 P0060616	이경진 P0061004	장운태 P0061007
백영선 P0060819	이금옥 P0061531	전순호 P0060980
백영호 P0058567	이기영 P0054844	전정선 P0059906
백은주 P0059745	이남주 P0056865	전지영 P0060344
부인자 P0060998	이봉삼 P0059743	정미화 P0061002
부지연 P0060088	이상희 P0061070	정성필 P0060891
서건욱 P0060823	이선미 P0060974	정세환 P0060653
서정희 P0061005	이성진 P0060817	정승원 P0056065
서주현 P0061389	이성우 P0060085	정윤점 P0043568
석소영 P0060850	이승미 P0060082	정인채 P0060352
성경숙 P0060244	이예란 P0061020	정명식 P0060695
성숙자 P0060813	이연영 P0010231	정창훈 P0061087
성주영 P0061627	이영단 P0042222	정현주 P0051674
소병혁 P0060668	이영신 P0060983	정희영 P0060860
소병호 P0061262	이영진 P0060615	정희재 P0060459
소선옥 P0060619	이영태 P0061008	조도연 P0061158
소숙희 P0059759	이예림 P0045714	조성혜 P0060868
손명희 P0040127	이용재 P0045379	조성혜 P0061485
손혜원 P0060756	이우빈 P0061488	조영택 P0060996
송윤진 P0060432	이은미 P0061046	조원선 P0038032
신문성 P0061014	이은영 P0061003	조윤경 P0060995
신상음 P0060973	이인우 P0060753	조은현 P0059572
신양숙 P0061160	이재숙 P0061028	조철기 P0061129
신옥순 P0060089	이정순 P0061445	조현숙 P0061019
신은구 P0061608	이정표 P0059967	조혜영 P0060849
심종섭 P0061001	이종애 P0061026	주봉화 P0041563
안신해양중학교 P0005033	이지혜 P0059852	진명생 P0050502
	이진우 P0061013	천인혜 P0061017
	이진형 P0061695	최귀자 P0060804



1. 위생용품 지원

지난 11월 보건 위생의 기초가 되는 치약, 치솔, 비누, 손수건 등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였다. 이번에는 2월에 이어 두번째 지원하는 것으로 리보나 지역의 알라원을 포함한 두개 지역, 딸라각 지역의 오버루킹, 다물록 지역의 미까실리를포함한6개 지역 총1,127명의 학생들에게 분배하였다.



2. 마을 개발 훈련 프로그램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JTS 센터에서 마을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물록의 5개 마을, 센터 인근 리보나에 위치한 알라원, 만타부에서총 27명이 참가했다. 정신 개척 강의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퇴비 만드는 방법등을 강의하고 실습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매일 아침마다 국가를 부르고 조깅을 하는 등의 훈련도 병행하면서 나라에 대한 마음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